



## 1, 2, 3 부 예배 SERVICES

인도: 1부 박형규 목사 (Rev. Hyoungkyu Park)  
2부 최찬영 목사 (Rev. Chanyoung Choi)

- **입례찬송** 31장  
Opening Hymn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Praise Him, praise Him
-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220장  
Hymn 사랑하는 주님 앞에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 4, 5 부 예배 SERVICES

### 4부 영어예배

설교 Sermon 김정호 목사  
Chongho Kim

Luke 12:13-21  
"Life Beyond Self"

### 5부 예배

설교 Sermon 손정은 전도사  
Pastor Jungeun Son

기도  
Prayer

1부: 이병무 장로  
2부: 양은희 권사  
3부: 이홍철 집사

찬양  
Anthem

1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James M. Stevens/ Joseph M. Martin  
2부: 선한 목자 되신 주 - Bob Krogstad  
3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James M. Stevens/ Joseph M. Martin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환영 인사 및 광고  
Welcome & Announcement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3:4-7

설교  
Sermon

사랑의 가정 생활  
(Family Rooted in Love)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결단 찬송  
Hymn of Response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Come, we that love the Lord

축도  
Benediction

**01. 예배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신 류계환 목사(한인총회 선교총무)와, 김중언 목사(전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전유택 총장(평양과기대)께 감사드립니다.

**02. 성경필사 1기 모집(신약성경) Bible Writing Season 1**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경필사를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필사에 참여하실 분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참가선물이 있습니다.

필사: 3월 7일(토) 오전 7시/친교실      문의: 최찬영 목사

**03. 샬롬 아카데미 Shalom Academy**

UMC '사회신경'(Social Principle)을 중심으로 이 시대 정의·평화·희년 목회의 사명을 알고, 길을 모색할 '샬롬 아카데미' 첫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월28일(금)~3월1일(주일)      강사: 고요한, 권혁인, 류계환, 한명훈 목사

**04. 유초등부 눈썰매 Children's SUNDAY SCHOOL Winter Outing**

오는 토요일 유초등부에서 눈썰매(Snow Tubing)에 다녀옵니다.

일시: 2월 15일(토) 9:00am~5:00pm

장소: Mountain Creek (200 Route 94, Vernon, NJ 07462)

**05. 토요 한글학교 봄학기 등록안내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기간: 2/29~6/6      시간: 9:00am~2:00pm(매주 토요일)

대상: Pre-K~5th(9월학기 기준)      비용: \$150(재등록/교인 \$120)

문의: 최대호 전도사(noahdchoi@gmail.com)

**06. 어와나 봄학기 등록 및 교사 모집 AWANA Spring Registration & Call for Volunteers**

기간: 3/1~6/7      시간: 1:00pm~2:15pm(매주 주일)

등록비: \$30      문의: 박대현, 최대호 전도사

**07. 주일 한글학교 신설 Korean School on Sunday**

새롭게 신설하는 주일 오전 어린이 한글반을 위해 교사(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시간: 매주일 오전 9:15-10:45 (1시간30분)      문의: 최대호 전도사

**08. 새벽 차량운행**

새벽예배(월~토요일) 유급 차량 운전자를 찾습니다.      문의: 박대현 전도사

**09. 2020 달력 New Calendar**

달력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주세요.

**10.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가 나왔습니다. 큐티나농방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개인위생에 각별한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하기, 손 소독과 손 자주씻기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중국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구조사 United States Census 2020**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를 통해 한인커뮤니티의 의견수렴과 예산 확보에 아주 중요한 인구조사에 참여 바랍니다.

인구조사 캠페인: 친교실(9am~2pm)      주관: 시민참여센터

**13. 후러싱제일교회 교적 프로그램 Online Church Directory**

"https://member.fumc.net"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합니다.

건물개조를 위한 특별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맨하탄 선교센터, 기도원, 및 본관 수리와 개조를 위한 100만불 헌금에 감사합니다

건물개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맨하탄 선교센터 공사 진행 중
2. 기도원/농장 보수공사 진행 중
3. 예배당 바닥과 의자 교체 완료

앞으로 수리/개조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작성하신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예배안내 Upcoming Worship Services

< 2월 설교 안내 - 주제: 행복하고 형통한 삶 >

2/2	축복된 경제 생활	신명기 8:18, 디모데전서 6:6-11
2/9	사랑의 가정 생활	고린도전서 13:4-7
2/16	거룩한 믿음 생활	로마서 8:28-35
2/23	헌신된 교회 생활	마태복음 9:35-38

< 2월 주일예배 기도 및 헌금 담당 > Sunday Service pray-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2/9	이병무 장로	양은희 권사	이홍철 집사
2/16	김정균 장로	이홍용 장로	전재희 권사
헌금위원	임성원 권사	박흥중 권사	정철환 권사

< 2월 수요일예배 안내 > Wednesday Service

주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다루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 가시관이 흔들리고 이단의 공격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쌓고자 합니다. (강사: 담임목사)

날짜	말씀	특송	기도
2/12	소요리 강해 4	2교구 6-9속	연영숙 집사
2/19	소요리 강해 5	3교구 1-4속	이대훈 장로



-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 쉽드 주차장  
38th Ave. 선상  
Parsons Blvd.와 147가 사이
- 글리슨 주차장  
149 Pl. 와 38 Ave. 사이

한어예배 KOREAN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	1 pm	본당
::5부	2:30 p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MAIN CTR
::WED	8 pm	VISION CTR
::SAT(YOUTH)	6 pm	VISION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
::수요일	8:30pm	본당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주일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pm
유아부(만3세미만)	11 pm
유치부(만3-4세)	11 pm
유초등(K-5)	11 pm
Jubilee (213호)	11 pm
(장매우 사역)	

청소년 YOUTH (VISION CTR)

중등부(6-8)	11 pm
고등부(9-12)	11 p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 am (Sat)
제일유아원	10 am (T-F)
(MOM & ME)	

성금의 사역자 학교

주 일	2:15 pm
화/목요일	10:30 am, 8:00 pm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이메일: fumccounseling@gmail.com

설교방송 TV/RADIO

주일	7 am
뉴욕 라디오 코리아	FM 87.7(엠피 FM 8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주일	8 pm
단비 TV (TWC 1487)	
월요일	8 am(재방송)
단비 TV (TWC 1487)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금요일	1 am (한국 시간)
C 채널TV (www.cchannel.com)	
토요일	9 pm
도요일	9 p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 길이 갈리면 양을 잃는다

담임목사 김정호

누가 제게 “목사님은 영생을 믿으세요?”라고 질문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니 믿는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살다보면 믿음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유대 교육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미 전제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 있다면 보수신앙을 이기적인 개인주의화하는 문제와 진보신앙은 복음을 세속화시키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보수가 세상에서 도피하여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진보가 교회를 성육신의 신비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없는 세속화된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선포의 권위가, 성도들은 고백의 겸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최인호가 쓴 ‘유림’이라는 소설에서 조선시대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갈래 길에 이르러 양을 잃었다’는 뜻의 ‘다기망양’이란 단어 설명을 읽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직면한 문제를 보아도 자기 생각이 맞고 신학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작 돌봐야 할 양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풀밭으로 이끄는 길이 정치의 근원이므로 이 길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정쟁과 편가르기에 의해서 정치의 길은 수많은 갈림길로 갈라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 수많은 갈림길 때문에 막상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최인호, ‘유림’, 289쪽)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다”(마태 11:30)하셨습니다. 엇그제 민주당 후보토론을 보면서도 가까운 곳에서 낮은 곳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그리고 단순명료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토론과 연설의 탁월함이 바닥의 현실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자의 길은 먼데로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바와 같느니라”(공자, ‘중용’) 우리 교단의 문제도 바닥 현장의 목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과제를 정치이데올로기 논쟁화 함으로 여러 갈래길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철학을 전공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 한분이 제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 거대담론(the grand narrative)이 무엇입니까?” 물기에 “요한복음 3:16절!”이라 했더니 “그런거 말고요. 시대를 읽어내는 그 무엇이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거대담론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하심 그 말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영화 ‘두 교황’(The Two Popes) 마지막 장면에 보면, 현 프란체스코 교황과 전 베네딕토 교황이 아르헨티나 독일 월드컵 결승을 보면서 서로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의 시작은 신학적 반대 입장에 섰던 두 사람이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내면서 토론하다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해방신학적 입장에 서있던 현 교황이 보수 교리를 지키려던 전 교황의 고민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큰 위기를 두 늙은이들이 대화를 하다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더니 월드컵 축구경기를 함께 보면서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